**마1924(2) Note**

**◆ “하나님께 버림받음 (찰스 피니)” 설교 중에서**

렘0629. 풀무(마푸아흐:대장간의 풀무,부는 것,풀무)가 타올라서(하라르:달아오르다,녹이다,태우다,마르게 하다,감정을 보이다,일으키다,노하다,태우다,말리다,타오르다), 납이 불에 의해 삼켜지니라, 제련자(짜라프:금속을 녹이다,정련하다,정련하는 사람,주조하다,제련하다,개조,금세공,녹이다,순수한,제거하다,연단하다)가 헛되이 녹이느니라, 이는 사악한 자들이 뽑아내지지 (나타크:잡아떼다,깨뜨리다,끊다,파열하다,끌어당기다,들어올리다,뜯다,당기다,빼내다,근절하다) 않음이라,

렘0630.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려진(마아쓰:내쫓다,사라지다,증오하다,내어버리다,업신여기다,멸시하다,경멸하다,싫어하다,거절하다,비난하다,버리다,완전히,악한 사람) 은(銀)이라 부르노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버렸음이라(마아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최후 선택을 미리 아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우리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인지 아닌지 상당히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죄 가운데 살면서도, 오랜 기간 번영을 누리는 사람**

오랜 기간 죄 가운데 살면서도,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7절에 보면

시9207. 사악한 자들이 풀과 같이 솟아오르는(파라흐:싹같이 튀어나오다,꽃이 피다,번영하다,종기가 발하다,싹이 나다,번성하다,자라다,튀어나오다) 때에, 사악함 (아벤: 헛되게 노력하다,실패로 끝나다,쓸데 없음,고통,헛됨,악함,우상,고통,악한,악)을 행하는 모두가 번창하는(쭈쯔,추츠:반짝반짝 빛나다,흘긋 보다,꽃이 만발하다,번창하다,꽃이 피다,만개하다,번영하다,드러내 보이다) 때에, 그것은 그들이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이 땅에 속한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략..)

만약 누군가 오랜 기간 죄 가운데 살면서도 번영을 누리고 산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2) 은혜의 방법들을 습관적으로 등한시 하는 사람**

구원은 받은 자이며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자로서,

만의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자리를 습관적으로 거부하거나 등한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친구들과 기도에 대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되도록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을 멀리하고, 성경을 태만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기에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끝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엄청난 전염병이 퍼졌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목숨을 살릴 유일한 치료제를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함부로 대한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성령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

저는 이 설교를,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그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성령에 대한 갈망이 거의 멈추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시고 그가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4) 부흥을 경험하고도 회심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서도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 증거가 됩니다.

그가 회심하지 않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가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은 더욱 확정적이 됩니다.

그는 부흥을 경험하는 동안 크든 작든, 죄에 대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심치 않자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결국 그를 떠나셨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구원 받도록 초청하시겠지?”라고 꿈꾸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성령이 소멸하시기까지 그분을 계속 거부해왔다면, 저는 별다른 희망이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셨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5) 죄 가운데 살면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

이 말씀은 25세가 되기 전에부터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준엄하고 경고가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경우는 아주 작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고도 회심하지 않은 나이 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부터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익숙해진 삶을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회심을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나중에 회심하여 구원 받을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 얄팍한 계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20살이 넘어서도 아직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 확률은 매년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40대에 속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 지난 부흥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 회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50대나 60대에 속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대의 회심한 사람을 찾기는 너무 힘듭니다. 아주 드뭅니다.

나이가 들고도 아직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이여!

여러분 중 50명 중에 1명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일 것입니다.

**6) 징계 받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1206.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제재(응징)하시며, 또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낱낱의 아들을 매질하심이라.

Ω히1207. 만약 너희가 제재(파이데이아:가정교수,교육,훈련,훈련으로 바르게 함,징벌,양육)을 견디어 내면, 하나님은 아들들을 다루듯이 너희를 다루시느니라, 이는 아버지가 제재(응징)하지 않는 그가 무슨 아들이 되겠음이냐?

히1208. 만약 너희가 모든 이들이 그것에의 동참자들인 제재(파이데이아:가정교수,교육,훈련,훈련으로 바르게 함,징벌,양육)가 없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너희는 서출(庶出)들이지, 아들들이 아니니라.

**7) 징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어떤 시인이 말하길

“고통이 축복이 되지 못할 때, 천국은 절망가운데 우리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0105. 어찌하여 너희가 더 이상 매를 맞아야 하느냐? 너희가 더욱더 배역할(싸라:배교,범죄,면죄,계속적인,반란,반역하다,전환하다,틀린) 것이니라. 온 머리가 병들었으며 (홀리:질병,근심,재난,병,병들다), 온 마음이 생기를 잃었느니라 (다바이:병난,근심스러운,곤비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통 받을 때, 여러분이 징계를 받고도 마음이 더 완악해지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고 여러분이 죄를 쌓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까?

**8) 심각한 이단을 받아들인 사람**

극심한 이단의 거짓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아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들 자신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즐거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한 미혹이 침투하도록 내버려두셨습니다. (중략...)

그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희망은 비록 그들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였으나 진심으로 그 거짓을 믿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